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CNN Business: 미국인, 경제 나쁘다면서 소비는 '왕성'
- WSJ: 인플레이 줄어도 '인플레이 부담'은 줄지 않아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미 크레딧 카드 부채 연간 기록적으로 증가
- Bloomberg: 미 30년모기지율, 1년여만에 가장 크게 하락...7.61%

#### [주택]

- WSJ: 미국인 85%, "주택 구입하기 힘든 시기"

#### [에너지/전기차]

- WSJ: 많은 국가들, 오염 배출 감소 약속했으나 화석연료 생산 늘려
- Bloomberg: 전기차 시장의 판매 누적 가치, 2050년까지 57조 불 규모에 이를 듯

#### [글로벌 경제]

- CNBC: 글로벌 화물 경기 침체, 2024년까지 계속
- CNN Business: HSBC CEO, "중국 기업들 중국에서 벗어나 다각화"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월마트, 신경성 질병 고객들 위해 매장 내 쇼핑 환경 변화 줄 듯
- WSJ: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들에게 저렴한 헬스 서비스 제공
- Bloomberg: 삼성, 스마트폰에 적용될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테스트중
- CNBC: GM의 로보택시, 사람의 원격 도움 필요한 점 인정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CNNBusiness: Americans say the economy stinks. But they're spending like it's great**

#### **미국인, 경제 나쁘다면서 소비는 '왕성'**

- 어제 화요일 CNN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2%가 경제가 나쁜 상태이며 66%는 내년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할때 66%는 경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즈 설문에서는 2%만이 경제가 아주 좋다고 답했다.
- 그러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엔진인 소비 지출은 미 경제 성장률이3분기에 2분기 대비 2배 이상인 연율 5% 가깝게 성장토록 했다.
- 미국인들은 기록적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쌓여가고 있고 제때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지 못하는 잔액은 1조8백억달러에 달한다.

CNN Business 기사

## WSJ: 'Inflation Stress' Is Undiminished Even After Inflation Plunged 인플레 줄어도 '인플레 부담'은 줄지 않아

- 연방 센서국 자료에 따르면 미 인플레가 줄어들었지만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줄지 않았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생활비 비용 상승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작년초외 비교해 약간 높은 수치다. 인플레이션이 8% 이상에서 3.7%로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말이다.
- 특히 남부주에서 인플레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센서스 데이터를 조사한 달라스 연방중앙은행은 밝혔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CNNBusiness: US credit card balances see largest yearly leap on record 미 크레딧 카드 부채 연간 기록적으로 증가

- 미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크게 늘고 있고 부채 지불에는 뒤떨어지고 있다.
- 3분기에 크레딧 카드 총 부채는 3분기에 1조8백억달러로 2분기에 비해 4백80억달러 증가했고, 작년 대비해서는 1천5백40억달러 뛰었다. 연간 증가액은 뉴욕 연방은행이 이 수치를 집계한 지난 1999년 이래 가장 큰 증가 수치다.
-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체나 이른바 90일 이상 연체에 들어간 심각한 연체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11년말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층간 불평등이 확산된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CNN Business 기사

##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Tumbles by Most in More Than a Year

### 미 30년모기지율, 1년여만에 가장 크게 하락...7.61%

- 지난주 30년 미 평균 모기지율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 6월 이래 주택 구입 신청이 증가했다.
- 30년 모기지율은 25 베이스 포인트 낮은 7.61%로 올해 9월말 이래 가장 낮았다고 모기지은행협회는 밝혔다.
- 이 협회의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11월 3일 끝나는 주에 3% 증가했다. 물론 모기지율은 여전히 매우 좋은 상황이라 주택 매입을 꺼리게 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WSJ: It's Also a Bad Time to Buy a House  
미국인 85%, “주택 구입하기 힘든 시기”**

- 지금 주택 구입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는 상황이다.
- 모기지 업체인 Fannie Mae의 10월 전국 주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5%가 지금은 주택을 구입하기에 나쁜 시기라고 답했다.
- 그리고 응답자 78%는 경제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 그 이유는 놀랍지 않은데 주택 가격이 높은데다 또한 모기지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WSJ 기사

**[에너지/전기차]****WSJ: Nations Keep Upping Fossil-Fuel Production Despite Climate Pledge****많은 국가들, 오염 배출 감소 약속했으나 화석연료 생산 늘려**

-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공동으로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다.
- 현재 이들은 반대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일, 가스,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다.
- 에너지 생산이 많은 20개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데 부합하는 기준치의 화석연료의 두배를 늘릴 계획이다.
- 더우기 이날 11월에 COP28이라고 불리는 기후 회담을 주재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이 기후 약속과 에너지 생산 사이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리더들은 각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정하고 향후 수년간 화석연료를 줄이는 성명서 발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SJ 기사

**Bloomberg: EV Market's Surge Toward \$57 Trillion Sparks Global Flashpoints****전기차 시장의 판매 누적 가치, 2050년까지 57조 불 규모에 이를 듯**

- 블룸버그NEF는 모든 형태의 글로벌 전기차량 판매 누적 가치가 2030년까지 8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5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세계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더 빠르게 전기차로 대체한다면 세기 중반에는 88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 BNEF에서 운송 및 자동차 사업 분석을 담당하는 Colin McKerracher는 자동차 업계가 일자리와 R&D 투자 그리고 혁신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Bloomberg 기사

### [글로벌 경제]

#### **CNBC: The global freight recession will continue in 2024: CNBC Supply Chain Survey**

##### **글로벌 화물 경기 침체, 2024년까지 계속**

- OL USA의 CEO인 Alan Bare는 물류 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서, 물류 분야 침체가 2024년에도 계속되거나 2025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미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트럭 운송업계의 경우, 올해 연말 연휴에 화물 수요와 수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새로운 CNBC Supply Chain 조사는 내년 하반기에는 운송 업계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며, 상황이 나아진다면 내년 하반기가 돼서야 약간의 반등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CNBC 기사

#### **CNN Business: Chinese firms are increasing diversification outside of China, says HSBC CEO**

##### **HSBC CEO, “중국 기업들 중국에서 벗어나 다각화”**

- HSBC의 CEO인 Quinn는 중국 내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계 기업들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오늘 수요일, 싱가포르의 블룸버그 경제 포럼에서 그는 HSBC 직원으로부터 중국 고객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70% 증가했음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 Quinn은 데이터에 따르면, 현지점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기업보다 중국 밖으로 나가는 중국 기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N Business: Walmart is making noticeable changes in every store for morning shoppers. Here's why****월마트, 신경성 질병 고객들 위해 매장 내 쇼핑 환경 변화줄 듯**

- 월마트가 어제 화요일, 더 조용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 발표했다.
- 이번 새로운 변화는 매장 내 TV 벽면을 변화가 없는 이미지로 설정하고, 라디오 소리를 끄며 매장 조명을 낮추는 것이다. 월마트는 이런 노력이 특히나 신경 다양성 질병(neurodiverse)을 가진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이로울 것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 이번 변화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미국 내 모든 월마트 매장에서 하루 일부 시간 동안에 진행된다.

## CNN Business 기사

**WSJ: Amazon to Offer Lower-Cost Primary Care to Prime Members in Latest Healthcare Push****아마존, 프라임 구독자들에게 저렴한 헬스 서비스 제공**

- 아마존이 다년간 확장을 추구해 왔던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의 프라임 멤버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 이 기업은 오늘 수요일 수백명의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들에게 올해 초 아마존이 39억 달러에 인수했던 One Medical의 연간 멤버십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 아마존 관계자는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는 앞으로 월 9달러 또는 연간 99달러에 One Medical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One medical 연간 이용료는 199달러이다.
- 이러한 아마존의 움직임은, 헬스케어 산업에서 아마존이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 WSJ 기사

**Bloomberg: Samsung Tests AI ChatBot That May Wind Up in Its Smartphones****삼성, 스마트폰에 적용될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테스트중**

- 삼성이 19세기 독일 수학자의 이름을 딴 “가우스”라고 불리는 생성형 AI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로써 ChatGPT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계열에 참여하게 됐다.

- 오늘 수요일, 삼성의 경영진은 회사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에게 삼성이 이메일을 작성하고, 문서를 요약 그리고 콘텐츠를 번역하는데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AI 봇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삼성은 세계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ChatGPT 등장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은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제품에 자사의 AI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CNBC: Cruise confirms robotaxis rely on human assistance every four to five miles

### GM의 로보택시, 사람의 원격 도움 필요한 점 인정

- GM은 자사의 자율주행 자동차 크루즈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는 주장에 인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크루즈가 까다로운 주행을 통과하기 위해 사람의 원격도움이 자주 필요하다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GM의 크루즈는 지난달 무인 차량의 지상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대략 한 명의 원격 보조 요원이 15대에서 20대의 크루즈를 담당했다고 CNBC에 밝혔다.
- 이 기업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격 요원은 일반적으로 로보택시에게 경로에 대한 정보 "wayfinding intel"를 제공할 뿐, 원격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NBC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연준 인사들, 다음달 금리 결정 앞두고 엇갈린 견해

#### "경제 견조...추가 금리인상" vs "시장 금리 상승, 기업·가계 압박"

지난주 기준금리 동결 이후 시장에서는 통화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예상이 커지고 있지만 정착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3분기 경제성장률, 일부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는 경제지표들,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 등 주요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 연준 인사들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연율 4.9%에 달하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폭발적인 성과"라면서, 향후 정책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